인문연구 제91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0. Vol. 91, No. 1, pp.1~30
http://dx.doi.org/10.21211/JHUM.91.1

『소년조선일보』 게재란 '자미잇는 글' 연구

공주은*

〈차 례〉

1. 들어가며
2. '자미잇는 글'의 구성 및 특징
3. '자미잇는 글' 수록 작품의 편집 양상 분석
   - 삭제, 재배열, 단순화
4. 나오며

【국문초록】

『소년조선일보』는 1936년 1월 13일 그 제호가 처음 등장한 후 1937년 1월 10일부터 1940년 8월 10일까지 매주 일요일 독자적인 4면 체제로 별쇄된 어린이 신문이다. 어린이를 독자층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조선일보』를 일종의 '특수지'라 할 수 있다.

'자미잇는 글'은 1940년 1월 14일 지면에 처음 등장한다. 이는 3면의 다른 코너들과 같이 독자인 어린이의 학습을 위해 기획된

*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양학부 강사

것으로, 기성 작가들의 기존 발표작을 소개하고 있다. 이때 '자미잇는 글'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學習 페-지'로 구성된 같은 지면의 또 다른 코너들, 그중에서도 어린이가 투고한 글을 게재한 '작문'과 연결된다. 전신(前身)이라 할 수 있을 '조선어 시간(공부)'이 내재한 교육적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자미잇는 글'은 신문 독자인 어린이들의 작문 기준이자 본보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를 간단히 기존 작품 소개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한편 이 신문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은 언론 통제라는 시대적 상황과 그로 인해 작용하는 편집 주체의 의도와 긴밀히 맞물려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3면에 자리잡은 '學習 페-지'의 게재란 '자미잇는 글'에서 목격되는 선별과 편집의 과정은 이 신문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작품들이 '자미잇는 글'에 재수록되는 과정에서 '편집'을 거친 사실이 목격되는데, 이는 어린이들이 읽었을 때 지극히 현실적이거나 비극적인 색채를 담은 즉, '학습 자료'로써 불필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을 삭제, 재배열한 흔적으로 보인다.

이같이 '자미잇는 글'에서 발견되는 일련의 선별 과정은 '작은 인간'으로서 어린이 스스로가 작품을 통해 현실(세계)을 겪고 파악할 일말의 가능성조차 차단해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소년조선일보』, 특수지, 學習 페-지, 자미잇는 글, 언론 통제, 편집 의도, 아동문학, 이태준, 이효석, 주요섭

1. 들어가며

문학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상정할 때 발표 지면에 대한 분석은

작품의 성격과 수록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이면서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는 발표 지면이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둔 특수지인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본고에서 다루는 『소년조선일보(少年朝鮮日報)』는 그 제호가 1936년 1월 13일자 『조선일보(朝鮮日報)』 석간 3면에 처음 등장한 후, 1937년 10월부터 1938년 3월까지 용지 수급난으로 인해 본지에 다시 환원된 기간을 제외하곤, 매주 일요일 타블로이드 판형의 4면의 독자적 체제로 1937년 1월 10일부터 1940년 8월 10일 폐간 때까지 간행된 어린이 신문이다.

"출판물로나 기타의 교육재료로나 넘어도 빈약한 오늘날의 현상으로서는 우리 어린이의 귀엽고 아름다운 지식욕을 안타까웁게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잇"[1]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斬新한 編輯과 有用한 內容으로 우리 少年少女들의 科外敎材로서 十分滿足을 드릴 것을 自期"하며 "社會的 不遇를 바다온 우리 어린이들에게 福音이 될 同時에 新聞機關의 報道 使命 外에 意義가 깊은 文化運動"[2]으로써 소년판을 기획했다는 『소년조선일보』의 발간 취지에서 알 수 있듯, 이 신문이 어린이를 독자로 상정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된 특수지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소년조선일보』에 게재된 글들은 일반지의 그것과 비교할 때 분명한 '색채'를 띤다고 말할 수 있다.

『소년조선일보』에 대한 연구는 유경환의 논문이 거의 유일하며, 여타 논문들에서 제호가 발견되더라도 작품의 발표 지면 정도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간 것이 전부이다.

유경환은 『소년조선일보』의 발간 이유와 지면 구성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 신문의 문화적 위치를 "한국 언론에서 소년신문의

---

1) 社說 「소년판을 내면서」, 『朝鮮日報』, 1937. 1. 10.

2) 「朝鮮日報社의 新年三大計畫」, 『朝鮮日報』, 1937. 1. 1.

시작이 되며 모지(母紙)인 『조선일보』의 부록이긴 했으나 언론기능을 포함하고 있었고 보도기능, 계도기능과 더불어 사회화 및 사회 교육기능까지 수행한 특수언론"[3]이라 고평한다.

그 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 도출된 일련의 논문들은[4] 유경환 이후로 처음 『소년조선일보』를 언급하는 것이었으며 이 신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 매체 연구의 시작점에 서 있는 만큼 『소년조선일보』의 각 지면과 그것을 구성하는 작은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신문에 대한 정보가 잘못 기재된 부분도 발견된다.

본고는 기존의 이러한 개략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신문을 이루는 각 부분들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소년조선일보』에 대한 연구의 폭을 미시적으로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3면 '學習페-지'의 한편에 자리잡은 '자미잇는 글'에 중점을 두고 이 코너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핌으로써 『소년조선일보』 연구의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한다. '자미잇는 글'의 수록작을 정리하는 과정은 해당 신문에 대한 서지 파악에도 기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3) 유경환, 「한국 少年新聞의 社會的 機能에 관한 연구 - 少年朝鮮日報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43-46쪽 참조.

4) 이는 근대서지학회에서 기획하고 소명출판에서 발간한 『근대서지』 2019 제20호에 실린 것들로, 본고의 연구 방향과 관련해서는 김현숙, 「『소년조선일보(1937-1940)』의 아동서사 연구」, 이미정, 「『소년조선일보』 학습페이지에 나타난 '미묘한' 균형성」, 조은숙, 「전시체제기 어린이 미디어의 공간, 지상(紙上)의 헤테로토피아」 등을 거론할 수 있다.

2. ‘자미잇는 글’의 구성 및 특징


學習페-지
模範答案
讀方教室
자미잇는글
아빠가
매맛던이야기
어름
民重國法
兵守將令
品質檢
合格
야웅이—李元壽

[자료 1] 1940년 1월 14일자 『소년조선일보』 3면.[5)]

『소년조선일보』는 모두 네 개의 면으로 구성되는데 1면은 사진 화보, 2면은 국내외 소식, 3면은 ‘學習 페-지’, 4면은 문학 작품과 오락으로 채워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3면과 4면에 위치한 코너가 조금씩 이동하거나 독자의 관심에 따라 게재 공간을 확장하기도

5) 2019년 11월 6일 서울 조선일보사에서 자료 입수. 이하 본고에서 등장하는 신문 자료는 모두 필자가 직접 입수한 자료에 의거함.

하지만, 폐간 때까지 각 면이 대표하는 주요 내용들은 고정되어 있었다.

특히 '學習 페-지'로 구성된 3면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쳤던 다른 지면들과 달리, 구독자인 어린이들의 실제적 경험 및 실습의 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소년조선일보』의 창간 취지와 가장 부합한다. 한 예로 1940년 1월 14일자 3면은 다음과 같은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지면에 제시된 문제를 어린이 스스로 풀고 채점할 수 있도록 마련된 '讀方敎室', 자연과학과 관련된 원리를 전달하는 '理科', 수학 문제와 해답으로 구성된 '算術', 박태원의 「아빠가 매맛던 이야기」가 게재된 '자미잇는 글', 또래 독자들의 서예 작품, 이전 호에서 미리 제시된 주제로 독자가 직접 쓴 글을 싣는 '作文時間', 이원수의 동요 「야웅이」.

'자미잇는 글'은 1940년 1월 14일 『소년조선일보』 3면에 처음 등장한다. 이 코너는 당대 문단에서 이미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기성 작가들의 기존 발표작을 소개한다. '學習 페-지'의 특성에 맞추어 봤을 때, '자미잇는 글' 역시 어린이들의 지식 습득과 그것을 통한 실습에 유용한 내용으로 채워졌으리라 추측된다.

'자미잇는 글'의 성격은 그 전신(前身)이라 볼 수 있을 '조선어 시간(朝鮮語時間)'[6]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조선어 시간'은 가람 이병기가 맡아 운영하던 코너로, 대체로 1)분석 텍스트[7], 2)텍스트에 대한 간단한 정보(작가, 창작 시기 등), 3)단어 뜻 풀이, 4)내용

6) '조선어 시간'은 1939년 4월 23일에 처음 등장한 후 당해 5월 7일부터 '조선어 공부'로 명칭이 바뀌어 1940년 1월 7일까지 이어진다. 명칭이 바뀌고 1939년 5월 14일부터는 코너명과 병기돼 있던 숫자도 사라진다.

7)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가 포함되는데, 이병기 자신이 보고 들은 이야기(1939. 4. 23, '당주 윤생원'), 세계적 문호의 글(1939. 4. 30, '참새'(「엽인일기(獵人日記)」) - 이반 트루게네프의 「사냥꾼의 수기」), 옛날 이야기(1939. 6. 18, '최 효부(崔孝婦)'), 전해 내려오는 노래(1939. 5. 7, '봄노래'), 동요(1939. 5. 28, '동요')나 조선어 문법(1939. 7. 2, ''의'와 '에'의 쓰이는 법'), 속담(1939. 7. 9, '속담') 등이 있다.

해석, 5)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및 작문 기법 설명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 돌연이 산양개는 백화(白樺)나무아래로줄다름질을 처간다 올치 또 무엇이 생겻구나하고 똥그러케떠보는「투루게-넵흐」의 눈동자속에 비친 것은 뜻박게 으르렁거리고 달려드는 산양개 때문에 몸을 떨고잇는 가련한 한마리 참새새끼 이엇다. …
>
> ○
>
> 이글은 글을 잘하기로 세계에 유명한아라사사람 「투루게넵흐」라는 이가 지은 엽인일기(獵人日記)에서 번역한것입니다.
>
> ▲돌연이는 별안간과가튼말. ▲백화나무는 자작나무. 우리 조선에도 산에나 섬에 잇스며 책판을사기는데 만히 쓰이는 나무 ▲산양개는 산양할 때 데리고 다니는 개, 산양은 옛날로는 산행(山行)인데 산에가서 짐승을 잡는것 …
>
> 이는 그의 날카로운 붓으로 재치스럽게 적은글입니다. 그는 그광경을 자기가 보고적으면서도 다른사람이 본것처럼 적엇습니다. **이건 묘사(描寫)의 한법을쓴것입니다. 소설(小說)가튼글을 슬때에는 이런묘사법(描寫法)을 만히 쓰는것입니다.**
>
> **만일 우리가 이런광경을 보앗다면 이러케 적을수 잇겟습니까.** 이글 가운데 그 무슨뜻이 가장 감동됩니까 잘읽어보시오.
>
> – 이병기, 「참새」(『소년조선일보』, 1939. 4. 30. 강조는 인용자, 이하 상동)

위 인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이 코너는 필진인 이병기가 판단했을 때 '잘 쓰인 글'을 제시하여 독자들의 식견을 넓히는 동시에, 글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과 작문 기법을 풀어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이를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하에 기획되었다. 즉 다시 말해 신문의 독자인 어린이를 학습자로 상정한 후 그들이 글을 쓸 때 적용할 수 있는 작문의 모범 예시로 텍스트들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지면에 위치한 '작문(作文)'과 연계되어 그 기준 즉, 본보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작문'은 독자가 신문에 투고한 글을 실어 소개한 것으로, 간혹 신문 사정에 따라 편집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발견되지만 『소년조선일보』의 창간부터 폐간까지 함께 한 고정 코너이다. 신문 편집진은 지면에 광고를[8] 싣고 상금과 상품을 걸어 독자들의 투고를 독려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구독자를 확보·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어 시간(공부)'은 1939년 7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사라졌다가 당해 12월 24일 이태준의 「바다」와 함께 재등장한다. 이때 그간 코너를 맡아온 이병기의 이름이 지워졌다는 점, 작품의 출전을[9] 따로 밝히고 있다는 점, 텍스트 뒤에 이어지던 해설 부분이 사라졌다는 점을 통해 기존의 형식에서 보다 단순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영철의 「쌍둥밤」이 실린 1940년 1월 7일자 지면에서도 같은 모습을 취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호인 1월 14일자에서 '조선어 시간(공부)'의 자리에 '자미잇는 글'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자미잇는 글'의 모습이 '조선어 시간(공부)'의 재등장(1939. 12. 24) 후의 모습과 겹친다는 점에서 이 코너가 코너명만 바꾸고 재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 처음 '조선어 시간'이 게재된 때의 부기(附記) 부분을 통해서도 이 코너가 '조선어 시간'을 전신으로 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8) 1937년 2월 14일 『소년조선일보』 4면에 처음 등장한 후 거의 매 호 실리며 작문, 도화(圖畵), 습자(習字) 작품을 모집했던 '작품을 보내시오'뿐만 아니라 '특별 작문 현상 모집', '신춘현상 아동작품 모집' 등과 같은 현상 모집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9) '조선어 시간(공부)'이 재등장한 1939년 12월 24일의 경우 이태준 「바다」의 출전으로 『조선문학독본(朝鮮文學讀本)』이 병기된다.

> 이호부터 李秉岐先生께서 朝鮮語時間을 마터가지시고 호마다 **자미잇는글**도 실고 그解說도 실겟습니다 李先生께서는 지금 市內徽文中學에서 가르키고게십니다.
>
> -「당주 윤생원」(『소년조선일보』, 1939. 4. 23.)

그렇다면 '자미잇는 글'이 이 시기에 이름을 바꾸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주지하다시피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일제는 신문, 잡지 등 매체에 대한 검열을 강화한다. '자미잇는 글'이 지면에 처음 등장한 1940년 초는 일명 '대동아전쟁'을 목전에 둔 시기였기에, 『소년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조선일보사로서도 일종의 개편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말해 이는 '조선어'라는 특수성을 지우는 작업이었다.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겉으로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민족말살정책을 추진한다. 1938년에 시행된 3차 조선교육령 역시 이러한 황국신민화정책의 일환으로 배태된 것이었다. 3차 조선교육령의 핵심은 학제 통일과 교과과정 변화에 있었다. 특히 기존에 필수과목이었던 조선어가 수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수업 시수 역시 감소하여 실제 4학년 이상에서의 조선어과 교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에 처할 정도였다.[10]

3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된 시점에 남아 있던 두 신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지원병 제도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조선어 교육 폐지에는 반대했던 것을 감안하면, 두 신문이 민족의식 때문에 조선어 교육 폐지를 반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차적으로는 조선어 신문으로서의 자신의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을 것이고, 또한 이른바 '문화적 민족주의'의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11]

---

10) 장정희, 『한국 근대아동문학의 형상』, 청동거울, 2014, 33-34쪽 참조.
11) 김민환·박용규·김문종, 『일제강점기 언론사 연구』, 나남, 2008, 101-

『소년조선일보』는 어린이 신문으로, 『조선일보』와 독자 체제를 걷는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했으나 두 신문은 여전히 "한몸덩어리의 머리와 팔"[12]과 같은 존재였기에 이 역시 총독부의 검열을 피할 수는 없었다. 특히 전시체제기에 접어든 후부터 『소년조선일보』의 1면에 실리는 화보나 2면에 실리는 국내외 소식은 거의 매 호 전쟁과 관련된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는 결국 『소년조선일보』의 전체 지면이 시국적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조선어문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조선어철자법 제정에도 공헌하는 한편 학교에서 조선문학을 강의하기도 한, 조선어와 조선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이병기의 이름을 코너에서 삭제한 것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우리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기존에 게재되던 '조선어 시간(공부)'을 '자미잇는 글'로 개편함으로써 조선어 공부의 성격을 문학작품을 통한 간접적 전달 방식으로 이어간[13]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자미잇는 글'이라는 게재란은 조선어 공부라는 직접적인 민족적 색채를 지우면서도 여전히 민족어를 학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발간 취지에서 밝힌 다종다양한 문화운동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3면의 '자미잇는 글'에 문학 작품이 게재된 것과 같이 4면 상단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등장하는데, 각 지면이 갖는 특정한 역할에 맞게 두 공간에 게재된 작품들 역시 구분된다. 김현숙은 "학습 목적을 갖지 않는 이야기여야 하며, 학습 목적이 없더라도 기존 작품의 재수록물은 배제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중심으로 수록하

102쪽 참조.

12) 「작별의 인사」, 『소년조선일보』, 1940. 8. 10.

13) 이미정, 앞의 논문, 873-874쪽 참조.

되, 전래담의 재화 내지 번안담의 경우 『소년조선일보』의 지면에 맞추어 새로 손질할 것들이어야"[14] 4면에 실릴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3면과 4면의 아동 서사를 구분한다.

정리하여 말하면, '자미잇는 글'은 4면 상단의 작품들과는 달리 이미 문단에서 명망 있는 작가들의 기존 발표작을 실었다는 점과 독자인 어린이들의 문자 및 문학적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전화된 - 기성 작가가 쓴, 믿고 읽을 만한, 모범적인, 독자인 동시에 학습자인 어린이들이 따라 읽고 쓸 수 있을 만한, 우리말 표현이 아름다운 - 작품들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선어 시간(공부)'에서 '자미잇는 글'로의 변모 양상은 신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어'가 발현하는 민족적 색채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문제는 본래의 목적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 코너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작문'에서 오는 효용으로, 그 자리는 언제든지 '자미'와 '흥미거리'로 채워질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3. '자미잇는 글' 수록 작품의 편집 양상 분석
- 삭제, 재배열, 단순화

'자미잇는 글'에 소개된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14) 김현숙, 앞의 논문, 888쪽.

[표 1]『소년조선일보』'자미잇는 글' 게재 작품 목록(게재일 순)

순번	작품명	작가	게재일	쪽	구분[15]	비고
1	아빠가 매맛던 이야기	박태원	1940. 1. 14.	3	동화	㉡
2	밥그릇	이영철	1940. 1. 21.	3	동화	㉠
3	엄마 마중	이태준	1940. 1. 28.	3	동화	㉡
4	골목대장	박태원	1940. 2. 4.	3	동화	㉡
5	진달래	주요섭	1940. 2. 11.	3	동화	㉠
6	고양이	현덕	1940. 2. 18.	3	동화	㉠
7	사랑 손님	주요섭	1940. 2. 25.	3	단편소설	㉣
8	들	이효석	1940. 3. 3.	3	단편소설	㉣
9	소꼽	박태원	1940. 3. 10.	3	동화	㉠
10	봄물과 少女	이헌구	1940. 3. 17.	3	동요	㉡
11	수박	이영철	1940. 3. 24.	3	동화	㉡
12	산	이효석	1940. 3. 31.	3	단편소설	㉣
	(새 학년에는 이러케 공부합시다)		1940. 4. 7.			
	(兒童作品特輯)		1940. 4. 14.			
13	팔뚝시게	이동규	1940. 4. 21.	3	소년소설	㉠
14	노하준 까치	이태준	1940. 4. 28.	3	동화	㉠
15	봄이 오면	이정구	1940. 5. 5.	3	동요	㉠
	(우리 作品 紙上展覽會)		1940. 5. 12.			
16	코끼리 코	정인섭	1940. 5. 19.	3	동요	㉠
17	호박꽃 초롱	강소천	1940. 5. 26.	3	동요	㉠
18	댑, 댑, 댑사리	윤복진	1940. 6. 2.	3	동요	㉠
19	형제별	방정환	1940. 6. 9.	3	동요	㉠
20	빨래	한정동	1940. 6. 16.	3	동요	㉠
21	바닷가에서[16]	윤복진	1940. 6. 23.	3	동요	㉠
22	흙손	윤석중	1940. 6. 30.	3	동요	㉢
23	사슴아 사슴아	윤석중	1940. 7. 7.	3	동요	㉢
24	다람쥐	이헌구	1940. 7. 14.	3	동요	㉠
25	꼿밧	주요한	1940. 7. 21.	4	동요	㉠
26	汽車	이원수	1940. 7. 28.	3	동요	㉣
27	넉 점 반	윤석중	1940. 8. 4.	3	동요	㉢
28	지는 해	정지용	1940. 8. 10.	2	동요	㉡

15) 동화와 소년소설, 동시와 동요의 구분 등 아동문학의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여 작품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본고에서의 주요 논점이 아니기에 논외로 한다. 각 작품의 구분은 출전인『아동문학집』,『어깨동무』,『현대조선문학전집』,『조선문인전집』의 것을 참고로 한다.

16) '兒童文學全集'에서 가져왔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작품이『아동문학집』48

'자미잇는 글'은 1940년 1월 14일부터 『소년조선일보』의 폐간일인 당해 8월 10일까지 수록되었다. 수록된 작품은 '새 학년에는 이러케 공부합시다', '兒童作品特輯', '우리 作品 紙上展覽會'의 세 차례 특집호를 제외한 모두 28편이다. 앞서 언급했듯 '자미잇는 글'은 '작문(시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기에 「꼿밧」이 게재된 7월 21일과 「지는 해」가 게재된 8월 10일을 제외하곤 모두 학습 페이지인 3면에 위치해 있었다.[17]

한편 '자미잇는 글'에 게재된 작품들은 출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아동문학집』이 출전으로 표기된 ㉠, 『아동문학집』에서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 『어깨동무』에서 가져온 ㉢, 출전을 알 수 없거나 앞의 둘 이외의 출전들이 표기된 ㉣이 그것이다.

쪽에도 수록된 것으로 봤을 때 이는 '兒童文學集'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7) 김현숙은 "1940년 1월부터 4월까지 3면에 '자미잇는 이야기'라는 코너가 마련된 적이 있다. … 이 코너에 수록된 작품은 전문 수록이 아닌 경우가 많고 기발표작의 재수록이었기에, 창작물이었지만 4면이 아닌 3면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하며 해당 코너의 서사물 목록으로 "①박태원, 「아빠가 매맞던 이야기」(1940. 1. 7) ②이영철, 「밥그릇」(1940. 1. 21) ③이태준, 「엄마 마중」(1940. 1. 28) ④박태원, 「골목대장」(1940. 2. 4) ⑤주요섭, 「진달래」(1940. 2. 11) ⑥현덕, 「고양이」(1940. 2. 18) ⑦주요섭, 「사랑 손님」(1940. 2. 25) ⑧이효석, 「들」(1940. 3. 3) ⑨박태원, 「소꼽」(1940. 3. 10) ⑩이헌구, 「봄물과 소녀」(1940. 3. 17) ⑪이영철, 「수박」(1940. 3. 24) ⑫이효석, 「산」(1940. 3. 31) ⑬이동규, 「팔뚝시계」(1940. 4. 21) ⑭이태준, 「노하준 까치」(1940. 4. 28)"의 14편을 들고 있다.
그러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러한 내용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가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박태원의 「아빠가 매맛던 이야기」는 1월 14일에 게재되었다. 또 모든 작품에 출전이 밝혀진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추가로 수정되어야 한다.

[표 2] 출전에 따른 구분

㉠『아동문학집』
: 「밥그릇」, 「진달래」, 「고양이」, 「소꼽」, 「팔뚝시게」, 「노하준 까치」, 「봄이 오면」, 「코끼리 코」, 「호박꼿 초롱」, 「댑, 댑, 댑사리」, 「형제별」, 「빨래」, 「바닷가에서」, 「다람쥐」, 「꼿밧」
㉡『아동문학집』 추정
: 「아빠가 매맛던 이야기」, 「엄마 마중」, 「골목대장」, 「봄물과 少女」, 「수박」, 「지는 해」
㉢『어깨동무』
: 「흙손」, 「사슴아 사슴아」, 「넉 점 반」
㉣ 기타
: 「사랑 손님」(『현대조선문학전집』), : 「들」, 「산」(『조선문인전집』), : 「汽車」

특히 『아동문학집(兒童文學集)』은 '자미잇는 글' 수록작들의 출전으로 가장 많이 표기되는데, 이는 이 저작물이 『소년조선일보』의 발행 주체인 조선일보사에서 1938년 12월 1일 출판부를 통해 발행된 것이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에 포함된 작품들 역시 『아동문학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자미잇는 글'에 게재된 작품들은 기존 발표작의 재수록 형식을 띠고 있어 대체로 출전을 밝히고 있는데, 이 범주의 작품들이 모두 『아동문학집』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동문학집』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작품을 싣고 있는 것은 『어깨동무』가 된다. 『어깨동무』는 윤석중의 네 번째 동요집이다. 비록 윤석중이 '자미잇는 글'이 수록된 1940년 1월부터 폐간 때까지 『소년조선일보』의 편집진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와 조선일보사의 두터운 관계망[18] 속에서 그의 동요집 『어깨동무』

18) 윤석중은 1936년 12월 조선일보 출판부 주간이었던 이은상의 소개로 조선일보사에 입사한 후 『소년조선일보』, 『소년』 등 조선일보사 발행 출판

에 실린 작품들이 자연히 이 코너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추정된다.

남은 것은 기타에 해당하는 ㉣이다. 이원수의 「汽車」는 출전이 밝혀져 있지도 않고 『아동문학집』이나 『어깨동무』에 실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방정환이 기획하고 주재한 『어린이』의 '글뽑기'를 통해 발굴된 윤석중, 서덕출, 윤복진, 박목월 등과 함께 당대 아동문학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친 이원수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코너에 실린 것은 자연스럽다 볼 수 있다. 주요섭의 「사랑 손님」은 단편 소설로 그 출전은 『현대조선문학전집(現代朝鮮文學全集)』이지만, 작중 '옥희'가 『소년조선일보』의 주 독자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섯 살로 설정되어 있기에 이질적이지 않다. 『현대조선문학전집』이 앞서 살핀 『아동문학집』과 같이 조선일보사 출판부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도[19] 작품 재수록의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이효석의 두 작품(「들」, 「산」)은 그의 창작 경향이나 활동 무대로 보았을 때 이질적으로 다가오기는 하지만[20], '자미잇

물의 필진과 편집진으로 활약하는 한편,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부수 확장 운동에서 매년 1위를 차지하는 등 조선일보사와 관련된 일에 정력적으로 매진한다. 이뿐 아니라 당시 사장이었던 방응모의 장학재단인 서중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39년 봄부터 3년간 일본 조치대(上智大) 신문과에서 유학하는 등 윤석중과 조선일보사의 유대관계는 긴밀했다고 볼 수 있다.(김제곤, 『윤석중 연구』, 청동거울, 2013, 96-99쪽, 조선일보90년사 편찬실, 『조선일보 90년사(上)』, 조선일보사, 2010, 426쪽,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조선일보 사람들 - 일제시대 편』, 랜덤하우스중앙, 2004, 520-525쪽 참조)

19)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조선일보사 출판부에서 1938년 8월 1일 발행한 『現代朝鮮文學全集』 '短篇集 下' 편에 수록된다.

20) 이효석은 아동문학을 창작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작중 인물을 어린이도 설정한 경우도 발견되지 않기에 '자미잇는 글'에 작품이 게재된 여타 작가들과는 이질적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효석의 작품이 '자미잇는 글'에 등장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밝히는 작업도 『소년조선일보』의 지면과 각 코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유의미하리라 본다. 지면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다.

는 글'이 어린이들의 작문의 예로 활용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대 문단에서 '시적'인 - '아름다운' 문체를 대표하는 작가로 그가 평가된 정황으로 보아 이 코너에 등장하는 게 일견 타당하다 사료된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 '자미잇는 글'에는 기성 작가의 기 발표작이 소개되고 있는데, 『소년조선일보』에 재수록되면서 일정한 '편집'을 거친 것이 확인된다. 이는 크게 제목 편집과 내용 편집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우선 새로운 지면에 실리면서 제목이 바뀐 예로는 주요섭의 「진달래」(원제 「진달래와 옥순이」)와 「사랑 손님」(원제 「사랑 손님과 어머니」), 이태준의 「노하준 까치」(원제 「불쌍한 三兄弟」), 부제의 삭제 여부까지 이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윤복진의 「댑, 댑, 댑사리」(원제 「댑, 댑, 댑사리 - 간난이에게 주는 자장가」)도 있다. 지면상 밝힌 출전에서는 모두 원제로 실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변화는 『소년조선일보』 편집진의 손을 거친 결과라 볼 수 있다.

또 작품의 내용을 편집한 예는 주요섭의 「진달래」, 「사랑 손님」, 현덕의 「고양이」, 이효석의 「들」, 「산」, 박태원의 「소꼽」, 이동규의 「팔뚝시게」, 이태준의 「노하준 까치」이다. 3면 '學習 페-지'에는 '자미잇는 글' 외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과외(科外) 내용들이 실려야 하기에, 분량상 지면이 모두 소화할 수 없는 동화나 소설이 주로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요섭의 「진달래」, 이효석의 「들」과 「산」, 이태준의 「노하준 까치」의 네 편의 수록작은 단순히 분량 조절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 봄이되면 북악산에는 진달래가 만발합니다.
>
> 진달래꼬츤 미트로부터 가지와 뿌리를 통하여 물을마시고 꼿이프로부터 따스한 햇비츨 흠씬 바더서 날로날로 무럭무럭 자라서 꼬치 만개가 되엇습니다.

어떤공일날 그산으로 소학교 생도들이 원속을 나왓는데 너도 나도 하고 진달래꼬치 봄내 자라난 어머니품을 떠나서 아이들의 손에 들리어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엇습니다.

한참 내려오다가 조그마한 시냇물을 만낫습니다. 아이들은 목도 마르고 덥기도 하니까 꺽거온 꼿 가지를 바위돌위에 노코 그 시냇물을 마시기도 하고 발도 씻고 한참야단이엇습니다. 불쌍한 진달래 꼿가지도 그 날 그 아이들에게 꺽기운때부터 지금까지 물 한모금 못 마시어서참으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엇습니다. 나무 뿌리가 속으로부터 빨아올려 보내주는 물을 마음껏바다 마시고 싱싱하게 살아잇던 꼿입들이 모두목이 말라서 생기를 일코시들시들 시들어저 버렷습니다. "나도 물 한모금만마섯스면." 하고진달래꼬치 애원햇스나 아이들은 꼬체말을 알아들을줄모르는고로 아른체도 아니햇습니다. 불쌍한 진달래 꼿가지 하나는 하도목이 타오르니까 바람님에게 애원을 해서물가으로 좀떠밀어달라 애원하엿습니다. 그랫더니 마음시 조흔 바람님이 싱글벙글싱글벙글 하면서살살불어주니까 진달래꼬츤그바람을 조차서조금씩 조금씩 물가으로 가까이 갓습니다. 그러자 아차-그꼿가지는 너무도 조급이 물을마시려고하다가 그만미끄러저서 그물살바른 물결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말엇습니다.

- 주요섭, 「진달래」(『소년조선일보』, 1940. 2. 11.)

위는 『소년조선일보』에 게재된 「진달래」의 전문을 가져온 것이다. 산에 있던 한 포기 진달래가 보통학교 생도의 손에 꺾인 후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 물가 가까이 갔다가 그곳에 빠져버린다는 짧고 간단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 이 작품은 "그 진달래 한포기의 애처로운 이야기"[21]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 진달래는 물을 타고 내려가 빨래일을 하며 겨우 삯을 얻는 어떤 여인의 손에 이르게 되는데, 그녀의 딸이 바로 제목에서 삭제된 '옥순이'이다. 여인의 빨래 광주리에 담겨 "게딱지만한 초가 오막살이"로 옮겨진 진달래는 가난 때문

21) 주요섭, 「진달래와 옥순이」, 『아동문학집』, 역락, 2010, 166쪽.

에 병을 고치지 못해 뼈만 남은 채 내내 누워만 있는 '옥순이' 곁에서 함께 하게 된다. 꺾여버린 진달래와 병이 깊은 '옥순이'는 서로를 위로하며 며칠을 보내게 되지만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간 때에 '옥순이'는 병으로, 진달래는 목마름으로 동시에 죽어버리고 만다.

이 작품은 빈궁한 사회 현실을 리얼하게 묘사함으로 현실에 대한 체념과 삶에 대한 애착이라는 인간적 갈등을 다루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존엄성 회복이라는 진실성을 표방했다고 평가되는데,[22] '자미잇는 글'에 재수록되면서 이러한 '빈궁한 삶', '죽음', '비극'과 같은 색채는 말끔히 지워져버린다. 특히 이러한 편집의 흔적은 진달래가 겪는 고난과 함께 비극적 감각을 극대화하는 '옥순이'의 존재를 제목과 내용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림으로써 더욱 분명해진다.

> 꽃다지, 질경이, 딸장이, 먼둘레, 솔구장이, 쇠민장이, 길오장이, 달래, 무릇, 시금초, 씀바구, 돌나물, 비름, 능쟁이, 들은 왼통 초록전에 더펴 벌써 한조각의 흙빗도 차차볼수업다. 초록의바다. 초록은 흙빗보다 찬란하고 눈빗보다 복잡하다. 땅은 어디서 어느때 그러케 만흔 물ㅅ감을 먹엇길래 봄이 되면 한꺼번에 그것을 이러케 지천으로 배타노흘까. 바닷물을 고래가치 드려켯던가, 하늘의 푸룬 정지를 모르는결에 함빡 마서 두엇던가, 고것을 비ㅅ물에 풀어 시절이 되면 땅우로 소처보내는 것일까, 그러나 한포기의 풀을 뽑아볼 때 입새만이 푸를뿐이지 뿌리와 흙에눈 아무 물드린 자최도 업슴은 웬일일까.
>
> 꽃다지 질경이 먼둘레…. 가지가지 풋나물을 뜨더먹으면 몸이 초록으로 물들것갓다. 물들어야 될것갓다물들어야 올흘것갓다. 물들지 안흠이 거짓말이다. 물들지 안흐면 안될것갓다. 새가지저귄다. 꾀꼬리일까. 지평선이 아롱거린다들은 내세상이다.
>
> 언제까지든지 푸른하늘을 우러러보고 잇스면 나종에는 현기증이 나

22) 정선혜, 「휴머니즘과 근대성의 조화 - 주요섭의 아동문학 발굴 조명」, 『돈암어문학』 제13권, 2000, 197쪽.

며 눈이 둘러 빠질듯십다. 두 눈을 뽑아서 푸른물에 채웟따가 '라무네'병속에 구슬가치 차진 놈을 다시 살속에박아너흔것과 가치 눈망울이 차고 어리어리하고 푸른듯하다. 살과는 동떠러진 유리알이다. 그러케도 하늘은 맑고 멀다. 눈이아픈 것은 그 하늘을 발칙하게도 오래동안 우러러본벌인듯십다. 확실히 마음이 죄송스럽다. 반나절동안 두려움업시 하늘을 똑바로 치어다 볼수잇는 사람이란 가장착한 사람이거나 그러치안흐면 가장용기잇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케도 푸른 하늘은거룩하다.

- 이효석, 「들」(『소년조선일보』, 1940. 3. 3.)

봄을 맞아 들판은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과 풀들로 뒤덮인다. 하늘은 기약없이 우러러보고 있으면 눈이 아파올 정도로 높고 푸르다. '자미잇는 글'에 재수록된 「들」은 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분 역시 원작 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다. 그러나 작품이 재수록된 '자미잇는 글'의 지면에는 '나'와 '문수'가 왜 학교를 퇴학 맞고 도회를 쫓겨 내려와야 했는지, '책'을 읽는 일이 그들에게 왜 쉽지 않은 일인지, "사람의 사회"[23]에서 온 공포에 왜 그들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흡족케 하는 것이 왜 들과 같은 자연 말곤 없는지에 대해선 침묵한다. 아름답고 순수한 것들로 채워진 아득한 자연 외에, 오히려 신문 독자인 어린이들과 더 가까이 자리한 '진짜 현실'의 흔적은 삭제돼 있다.

불이 거의거의 어스러지고 물소리가 더한층맑다.
별들이 어즈럽게 깜박거린다.
달이 마른 나뭇가지에 걸렷다.

---

23) 이효석, 「들」, 이효석문화재단 편, 『이효석 전집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25쪽.

나머지 등걸불을 발로비벼 끄니 골작은더한층 막막하다.
어느만때인지 산속에서는 때도 분별할수업다.
낫가리 가치 두두룩하게싸힌 낙엽속에 몸을 송두리채 파뭇고 얼굴만을 빼꼼히 내노핫다.
몸이 차차 푸군하여온다.
하늘의 별이 와르르 얼굴우에 쏘다질 듯 십게 가까웟다 멀어젓다한다.
별하나 나하나 별둘 나둘 별셋 나셋-.
어느결엔지 별을 세이고 잇섯다. 눈이아물아물하고 입이 뒤박귀어 수효가틀려지면 다시 목소리를노펴 처음부터 고처세이곤 하엿다.
별하나 나하나 별둘 나둘 별셋 나셋-.
- 이효석, 「산」(『소년조선일보』, 1940. 3. 31.)

「산」의 경우 역시 같다. 어둠으로 덮인 산 속, 얼굴에 쏟아질 듯 숱한 별들만 지면 위에 존재할 뿐이다. '중실'이 '김 영감' 밑에서 머슴살이를 칠팔 년 하면서도 빈손으로 내쫓긴 사실이나 그가 거리의 살림을 "어수선하게 지지부레"[24]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모두 묵음으로 처리된다. 여기에 더하여 어린이들이 읽고 배우기에 부합하지 않다 '판단'된, 「들」의 '나'와 '옥분'의 야취 가득한 밤의 만남이나 「산」의 '중실'의 '용녀'에 대한 연정 역시 이 '중심'들과 함께 사라져버린다.

영선이는 저도 밥을먹지안코 애를썻습니다. 왜 파리를 안먹을가 밥알도안먹고-. 영선이는 호미를 들고 박그로나갓습니다.
벌써 해가젓기 때문에 잘보이지안헛스나감자 밧머리를 헤치고가까스로 지렁이서너마리를 잡앗습니다.
지렁이야 에미까치가 늘먹어 버릇햇슬것이니까 꼭먹을줄 알앗습니다 그러나눈만깜박거리고 안젓는까치새끼는 처음에는 한 마리바다먹헛스나 다음부터는 영선이손가락만 물어뜨드려고 하엿습니다.
영선이는 새끼가 무서워젓습니다 그래서노끈을 풀어주지도 안코가

24) 이효석, 「산」, 같은 책, 102쪽.

위로끈어주고 문을열고 손짓을 처서내몰앗습니다.
- 이태준, 「노하준 까치」(『소년조선일보』, 1940. 4. 28.)

위 인용 역시 '자미잇는 글'에 게재된 「노하준 까치」 전문이다. '영선이'가 새끼 까치를 살리기 위해 밥알도 먹이고 지렁이도 잡아주는 등 노력하다 결국은 까치를 놓아준다는 내용이다. 게재된 부분으로만 봤을 땐 '노하준 까치'라는 제목이 이질적이지 않다.

그러나 원래 이 글의 원제는 '불쌍한 三兄弟'이며, 내용 또한 간단히 까치를 놓아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새끼 까치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 등 마냥 착한 아이처럼 보였던 '영선이'가, 사실은 동무 둘과 함께 까치 둥지를 찾아 새끼 까치 세 마리를 훔쳐 각자의 집에 데려간 후 한 마리는 고양이에게, 또 한 마리는 굶어서, 마지막 한 마리는 화로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원제였던 '불쌍한 三兄弟'는 아이들의 장난으로 인해 죽어버린 새끼 까치들의 이야기였던 셈이다. 앞서 살핀 게재 부분은 '영선이'가 저지른 일종의 '악행'은 삭제하고 작품의 첫머리와 그가 까치를 놓아준 장면만 재배열하여 실은 것이다.

한편 '자미잇는 글'에 실린 삽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곳의 삽화들은 편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려지는데, 함께 게재된 텍스트의 내용을 보충하는 동시에 그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삽화의 특성상 재수록되면서 단순화된 작품의 내용을 특정한 이미지를 통해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자미잇는글
진달래
朱耀燮 先生

[자료 2] 주요섭, 「진달래」
(『소년조선일보』, 1940. 2. 11.)


자미잇는글
들
李泰俊 先生

[자료 3] 이효석, 「들」
(『소년조선일보』, 1940. 3. 3.)


자미잇는글
산
李孝石 先生

[자료 4] 이효석, 「산」
(『소년조선일보』, 1940. 3. 31.)


자미잇는글
노하준 까치
李泰俊 先生

[자료 5] 이태준, 「노하준 까치」
(『소년조선일보』, 1940. 4. 28.)

이는 앞서 밝힌 각 작품의 삭제, 재배열, 단순화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가난과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거나 악행을 저지른 어린이, 어지러운 세상에 찌든 불편한 어른이 삭제된 빈 자리는 무구한 자

연과 모범적인 어린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채워진다.

1940년 5월 19일자에 실린 '작문(시간)'이 검열·삭제당한 사건은 이러한 변모의 양상을 뒷받침한다. 『소년조선일보』 편집진은 '쌀'을 주제로 작문을 모집하였고 그 결과 조영희(趙英喜)라는 어린이가 지은 200자 원고지 2장 정도의 아주 짧은 글이 게재된다. 전해의 흉년으로 쌀이 부족하였으나 배급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정을 묘사한 작문이었는데 조선총독부 도서과는 이 글의 삭제를 명령한다. "어린이의 작품으로서는 명랑하지 않고, 내용 역시 적절(穩當)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작문을 가작으로 뽑은 선자(選者)는 마치 이를 흥미 있는 것 같이 평을 쓰는 등 시국하에 근신하지 않은 필치라는 것이 삭제 이유였다.[25]

이와 더불어 필자가 정리한 [표 1]을 보면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데, 1940년 5월을 기준으로 수록 작품의 장르가 완전히 동요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 그것이다. 앞서 2장에서 살폈듯 『소년조선일보』의 지면 역시 언론 통제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이러한 장르 변화 역시 그러한 사실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동화나 소설 같은 산문적인 글에서 동요로 단순히 장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록 작품의 성격 역시 변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호박꼬츨 따서는
> 무얼 만드나
> 무얼 만드나.
> 우리 아기 조그만
> 초롱 만들지.
> 초롱 만들지.

25) 『언문신문차압기사잡록』, 1940. 8, 48쪽. 정진석,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165-167쪽에서 재인용.

반딧불을 잡아선
무엇에 쓰나
무엇에 쓰나.
우리아기 초롱에
촛불 켜 주지
촛불 켜 주지.
- 강소천, 「호박꽃 초롱」(『소년조선일보』, 1940. 5. 26.)

달밤에 다람쥐 꼬까옷 입고
밤나무 가지로 달마중 간다오.
달마중 올라간 새끼 다람쥐
오독오독 날밤만 까먹는다오.

밤송이 한송이 떽떼굴 굴러
개울속 쫄라당 뒤어 드니까
다람쥐 졸졸졸 따라 내려와
쫄랑쫄랑 물 속에서 멱감아요.
- 이헌구, 「다람쥐」(『소년조선일보』, 1940. 7. 14.)

이정구의 「봄이 오면」을 기점으로 '자미잇는 글'에 수록된 작품은 '더 이상 편집을 거치지 않아도 편히 실을 수 있는', 의성어나 의태어의 나열이나 어휘(문장) 반복과 같이 지극히 유아적인 말장난 혹은 언어유희를 내세운 것으로 바뀐다. 이러한 모습 역시 앞서 살핀 동화, 소설의 편집 양상과 함께 『소년조선일보』가 그리고 신문에 속한 편집진이 시국에 타협해 가는 과정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문'은 1940년 4월 16일 '작문 현상 모집(作文懸賞募集)' 광고를 거쳐 보다 정제된 형식인 '작문시간(作文時間)'으로 바뀐다. 이 때부터 두어 가지 주제를 걸고 일정한 '기준'에 맞게 '우등(優等)'과 '선외가작(選外佳作)'을 뽑아 지면에 표기하기도 했다. 뿐만 아

니라 선정된 작품 뒤에 짧은 심사평을 더해 보다 본격적인 작문의 장으로 거듭나게 하였다.

'작문시간'으로 새단장한 '작문'이 등장한 시점(1940. 4. 23)과 '자미잇는 글' 수록 작품의 장르 변모 시점이 겹친다는 사실은 이 두 코너가 상호 영향하에 있었다는 점뿐 아니라 새롭게 '설정'된 평가 기준에 어린이들의 글이 맞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게 한다. '자미잇는 글'에 게재된 작품의 장르가 동화나 소설 같은 산문적인 것에서 동요로 넘어가는 시기가 『조선일보』가 총독부로부터 폐간을 종용 당하던 시점과 겹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결국 이는 신문의 독자층인 어린이들이 받아들이기엔 지극히 현실적이고 비극적인 결말이나 단순한 감상 차원을 넘는, '학습 자료'로써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글들이 이곳에 실린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사료된다.

아동문학의 소재는 현실적 소재로부터 비현실적이거나 공상적인 소재에 이르기까지 성인문학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음에도[26] 불구하고, 『소년조선일보』의 편집진들은 원작이 내재하고 있던 현실적 요소와 현실 비판적인 시각을 모두 삭제하거나 재배열한다. '자미잇는 글'에서 발견되는 일련의 선별과정은 온전히 신문의 편집자인 어른의 판단하에 진행된다. 어른의 입장에서 제공된 '"斬新한 編輯과 有用한 內容"으로 구성된 '자미잇는 글''이라는 게재란은 결국 어린이를 순수하고 무구한 존재로만 보는 동심천사주의, 현실의 때가 묻지 않은 어린이에게 기성세대가 바라는 덕목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교훈주의로[27] 퇴행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26) 이재철, 『아동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14, 14쪽.
27) 원종찬,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14쪽.

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아동문학은 새로운 사회적 각도에서 선과 악의 올바른 개념을 불어 넣어 주고, 상상력과 상상력의 신장을 통하여 아동들이 보다 나은 정서적·생산적·적극적인 복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이든 가공적이든 아동의 생활 위에서 언제나 그들 편에서 진실하게 이야기되어야 한다.[28] 어린이에게 삶을 진실하게 그려 보이는 (아동)문학은 낮은 단계의 교육이 아니라 자기완결적인 문학으로서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29] 지적을 되새길 때, 엄연한 독자이자 주체로서 어린이들을 대해야 할 어린이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다는 점에서 『소년조선일보』의 '자미잇는 글'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4. 나오며

『소년조선일보』는 1937년 1월 10일부터 1940년 8월 10일까지 타블로이드 판형의 독자적인 체제로 발행된 어린이 신문이다. 이 신문은 모두 네 개의 면으로 구성되는데, 각 지면을 이루는 요소들 역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수지'라는 독특한 성격과 맞물려 구성된다. 지면을 이루는 각 요소들을 면밀히 살핀다면 아직 연구가 미비한 『소년조선일보』의 연구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특히 3면의 '자미잇는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미잇는 글'은 1940년 1월 14일, 3면 '學習 페-지'의 게재란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는 해당 지면에 위치한 코너들과 같이

28) 이재철, 앞의 책, 17쪽.
29) 원종찬, 앞의 책, 15쪽 참조.

신문의 독자인 어린이들의 지식 습득, 특히 문자 및 문학적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다. 전신이라 볼 수 있을 '조선어 시간(공부)'이 내재한 교육적 목적과 같은 지면에 위치한 '작문(시간)'과의 연계성을 통해 이 코너가 독자인 어린이들이 글을 쓸 때 모범적인 예시, 기준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기에 게재되는 작품은 기성 작가의 기존 발표작이라는 점에서 4면 상단의 아동 서사와는 구분된다.

'자미잇는 글'에는 동화, 동요, 소설 등 모두 28편의 작품이 게재되는데, 기존 작품이 이 지면에 재수록되면서 제목이나 내용이 편집되는 현상이 주목을 끈다. 주로 동화나 소설 같이 분량이 긴 작품들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재배열한 흔적이 목격되는데 특히 주요섭의 「진달래」, 이효석의 「들」과 「산」, 이태준의 「노하준 까치」는 단순히 분량 조절만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작품들이 편집된 양상을 분석한 결과 '자미잇는 글'에 재수록된 텍스트들은 어린이들이 받아들이는 데 지극히 현실적이거나 비극적인 즉, '학습 자료'로써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재배열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편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삽입된 삽화 즉, 내용의 단순화를 보다 공고히 하는 삽화가 글과 함께 지면을 구성하는 모습과 '자미잇는 글' 게재 후반기에 이르러 수록 작품의 장르가 동요로 전면 전환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미잇는 글'에서 발견되는 삭제, 재배열, 단순화와 같은 일련의 편집 과정은 『소년조선일보』 편집자인 '어른'들의 판단하에 진행되는데, 이는 '작은 인간'으로서 어린이 스스로가 작품을 통해 현실(세계)을 겪고 파악할 일말의 가능성조차 차단해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三千里』, 『聖畫』, 『少年朝鮮日報』, 『兒童文學集』, 『어깨동무』, 『朝鮮日報』, 『朝鮮中央日報』, 『現代朝鮮文學全集』

2. 논문

김현숙, 「『소년조선일보』(1937-1940)의 아동서사 연구」, 근대서지학회, 『근대서지』 제20호, 2019, pp. 880-919.
유경환, 「한국 少年新聞의 社會的 機能에 관한 연구 - 少年朝鮮日報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이미정, 「『소년조선일보』 학습페이지에 나타난 '미묘한' 균형성」, 근대서지학회, 『근대서지』 제20호, 2019, pp. 858-879.
정선혜, 「휴머니즘과 근대성의 조화 - 주요섭의 아동문학 발굴 조명」, 『돈암어문학』 제13권, 2000, p. 197.
조은숙, 「전시체제기 어린이 미디어의 공간, 지상(紙上)의 헤테로토피아」, 근대서지학회, 『근대서지』 제20호, 2019, pp. 787-816.

3. 단행본

김민환 · 박용규 · 김문종, 『일제강점기 언론사 연구』, 나남, 2008, pp. 101-102.
김제곤, 『윤석중 연구』, 청동거울, 2013, pp. 96-99.
원종찬 편, 『아동문학집』, 역락, 2010.
원종찬,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pp. 14-15.
이재철, 『아동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14, p. 14, p. 17.
이효석문화재단 편, 『이효석 전집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pp. 96-104, pp. 105-125.
장정희, 『한국 근대아동문학의 형상』, 청동거울, 2014, pp. 33-34.
정진석,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pp. 165-167.
조선일보90년사 편찬실, 『조선일보 90년사(上)』, 조선일보사, 2010, p. 426.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조선일보 사람들 – 일제시대 편』, 랜덤하우스중앙, 2004, pp. 520–525.

(**투고일**: 2020. 5. 19 **심사완료일**: 2020. 6. 22 **게재확정일**: 2020. 6. 23)

공주은
소 속: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양학부
주 소: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전자우편: kamang554@naver.com

[Abstract]

Research on the "*Jami'itneun Geul*(Interesting)" section in *Sonyeon Joseon Iibo*(Youth Joseon Newspaper)

Gong, Ju-eun

Sonyeon Joseon Iibo(Youth Joseon Newspaper) is a 4-page children's newspaper that had an exclusive section every Sunday from January 10, 1937 to August 10, 1940 since it first appeared on January 13, 1936.

"*Jami'itneun Geul*(Interesting)" is designed to educate children readers like other articles on 3 other pages and introduces published pieces of different writers. It is not the only article in the education page of the newspaper, but it is connected to other articles on the same page, especially with "*Jakmun*", which means composition, that publishes children's own writings. Considering that "Joseon Language Time" is its ancestor with an educational aspect, "*Jami'itneun Geul*" is the foundation and role model to children when it comes to writing. Hence, it cannot be considered as an article that simply introduces literary works.

The attempts of 'editing' can be seen in the process of republishing of the work on "*Jami'itneun Geul*", which means, the tone of extremely realistic or tragic setting for children was considered as not essential as 'educational material' so it was deleted and rearranged. The series of selecting process found in "*Jami'itneun Geul*" should be criticized as it eliminated even a small possibility of children as 'small people' to experience and analyze the real world through the stories.

Key words : *Sonyeon Joseon Iibo*(Youth Joseon Newspaper), special newspaper, educational material, *Jami'itneun Geul* (Interesting), press control, editorial intent, children's literature, Lee Tae-jun, Lee Hyo-seok, Ju Yo-seop